

(주소) 15385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동산로 268 (전화) 031-481-7000 (팩스) 031-481-7053

배 포 일	2023. 9. 14.	쪽수	사진	누리집	자료 문의
보 도 일	배포 즉시				
2023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지도와 영토》 개막		11	9	www.gmoma.ggcf.kr	부서 : 경기도미술관 학예운영실 담당 : 이 혜 현 전화 : 031-481-7038

2023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지도와 영토》 개막

	전 시 명	2023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지도와 영토》
	전시기간	2023. 9. 19. ~ 2024. 3. 24.(188일)
	전시장소	경기도미술관 2층 전시실 1, 2
	전시부문	회화, 설치, 영상, 아카이브 등(총 45점)
	참여작가	공성훈, 김건희, 김정현, 민정기, 정재철(총 5명)
	주최주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전시담당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이해현

- ▶ 경기도미술관 신규 수집 소장품전 개최, 소장 작품 7점 처음 공개
 - ▶ 김건희, 김정현, 공성훈, 민정기, 정재철 5인의 경기도미술관 소장품과 작가 및 유족의 소장품을 포함해 총 42점의 작품과 3점의 아카이브 전시
 - ▶ 전시 기간 중 <연구자의 방- 지도프로젝트>를 통해 다양한 관점의 연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
 - ▶ 전시 개막일(2023년 9월 19일)에는 <연구자의 방- 지도프로젝트> 첫 번째 강연이 개막 행사로 진행됨. 연구자는 이소요 작가로 「꽃그늘을 찾아가는 여행기」라는 주제로 정재철 연구 발표 예정
-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관장 전승보)은 2023년 9월 19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2023년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지도와 영토》를 개최한다. 《지도와 영토》는 한국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작가로 기록되는 공성훈, 김건희, 김정현, 민정기, 정재철 5인의 미술관 소장품 7점을 중심으로 두고 기획된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경기도미술관 소장품과 함께 작가 및 유족의 소장품 35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42점의 작품과 3점의 아카이브로 구성하였다. 이번 전시에 출품되는 7점의 소장품은 수집 후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것이다.

□ 이번에 공개하는 7점의 소장품은 최근 경기도미술관이 수집한 작품 중 연구 필요성을 느낀 작품을 선정한 것이다. 미술운동단체 '현실과 발언'의 창립 동인인 김건희, 김정현, 민정기의 1980년대 초기작 일부는 경기도미술관 소장품이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김건희의 <얼얼덜덜>과 민정기의 『사람들』 묶음집, 김정현의 <무지개공장>, <풍경8>, <분노하는 농부>는 2020년에 경기도미술관이 수집하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미술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김건희, 김정현, 민정기의 작가 소장 작품을 추가로 대여해 1980년대 작품 경향을 살펴보기 위한 확장 연구성과를 보여준다.

경기도미술관은 2006년, 2009년 공성훈 작가의 회화 작품 수집 이력이 있다. 작가의 초기 회화 작품 중 하나이자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중 하나인 '개' 연작은 이번 전시에서 초기 회화로서 위상뿐 아니라 1990년대 초반 '수제 슬라이드 프로젝터' 계열의 작품과 함께 살펴보고 그 가치를 연구한다. 경기도미술관이 2022년에 수집한 정재철의 <제 3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루트맵 드로잉>은 2000년대 초반 작가의 나무 조각 작품들을 통해 작가의 수행적 태도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 《지도와 영토》는 공성훈, 김건희, 김정현, 민정기, 정재철 5인의 작품을 전시하고 연구하는 과정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고 현대미술이라는 거대한 영토(嶺土) 위 다양한 길을 낸 작가들의 작품을 지도(枝道)로서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시 기획과 연구 행위가 유발하는 작품에 대한 해석과 감상의 확장성을 은유한다. 《지도와 영토》는 전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수반되는 연구 과정을 '연구자의 방-지도프로젝트'로 가시화한다. 전시실 내에 꾸러진 연구자의 방은 다섯 작가의 작품을 대상으로 미술작가, 학예연구사, 독립기획자, 미술전문지 기자 등 다양한 배경과 이력을 가진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들이 전시된다. 이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연구자의 방'은 5인의 작품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와 연구자의 글로 꾸며진다. 이 프로젝트는 전시 기간 중 40일을 주기로 운영되는데 그 순서는 정재철→민정기→김건희→공성훈→김정현이다.

□ '연구자의 방-지도프로젝트' 첫 번째 연구자는 이소요 작가이다. 이소요 작가는 「꽃그늘을 찾아가는 여행기」라는 주제로 정재철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도와 영토》 전시실에서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연구 관련 강의는 전시 개막일인 9월 19일 화요일 오후 14시 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다. 이 강의를 무료로 진행되며 경기도미술관 누리집을 참고하여 지지씨멤버스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누리집 주소 : <https://gmoma.ggcf.kr/events/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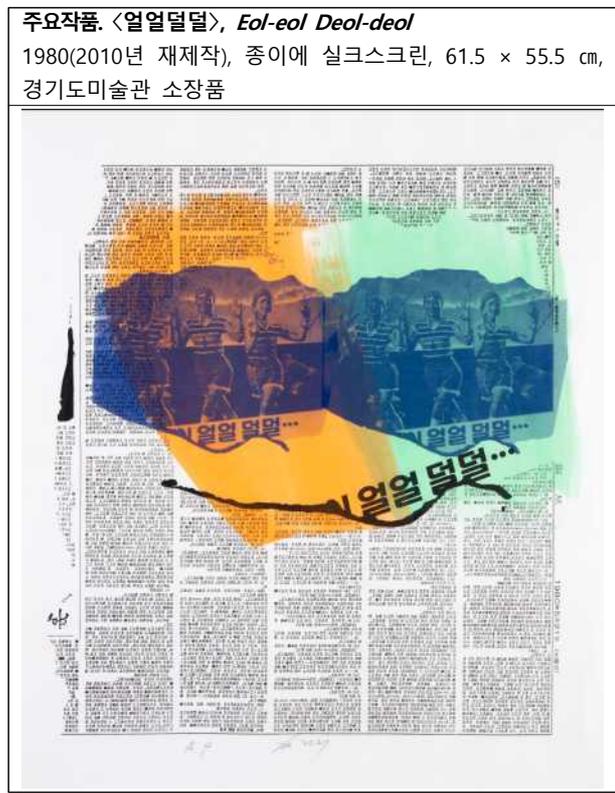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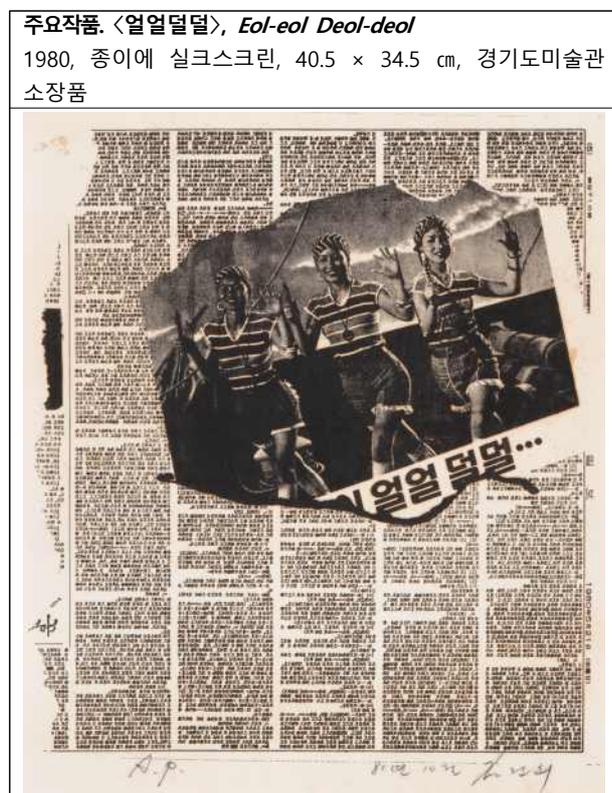
□ 이 전시는 작품과 아카이브의 고유성을 다양한 방식으로 부수고 흔들어 재맥락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기 위해 참여 작가 5인의 작품 세계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작품에 접근하고자 했다. 소장품 수집과 연구는 미술관의 중요한 기능이자 의제이다. 경기도미술관 이해현 학예사는 "이번 전시를 통해 경기도미술관이 수집한 작품의 가치와 그것으로 가능한 다양한 연구 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소장품 활용을 다층적으로 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다양한 연구가 관람객들에게 현대미술을 즐겁게 감상하고 탐험하는 좋은 길잡이(地圖)가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1. 작가 및 작품소개

□ 김건희 (b.1945)

김건희의 <얼얼덜덜>(1980), <얼얼덜덜>(1980/2010년 재제작)은 19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 단체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 출품작이다. 김건희는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기사가 적힌 신문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밝게 웃고 있는 3명의 여성이 등장한 지면광고를 배치했다. 이 작품은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 기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신문 기사를 모두 지우고 전시되었다. 1980년 제작된 <얼얼덜덜>은 기사를 지우기 전 흑백 버전의 작품을 살펴볼 수 있다. 2010년 재제작한 <얼얼덜덜>은 김건희가 1980년에 출품하고자 했던 작품 그대로를 복원한 것으로, 1980년 출품작과 달리 다홍색과 옥색의 요소를 추가되었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건희의 1980년대 다른 작품 <소리>(1987), <거리에서>(1981), <팜플릿 인물도>(1987) 그리고 다섯 점의 드로잉 습작을 선보인다. <소리>와 <거리에서>는 1980년대 사회상이 드러나는 작품으로 군중의 집단행동을 포착해 실크스크린으로 제작했다. 두 작품 모두 초장기 김건희의 드로잉에서도 나타나는 목판화의 간결한 인물 표현이 나타난다. <팜플릿 인물도>는 10년여간 함께 활동한 '현실과 발언' 동인들을 그린 작품으로 그들에 대한 작가의 애정과 따뜻한 시선을 느낄 수 있다



□ 김정헌 (b.19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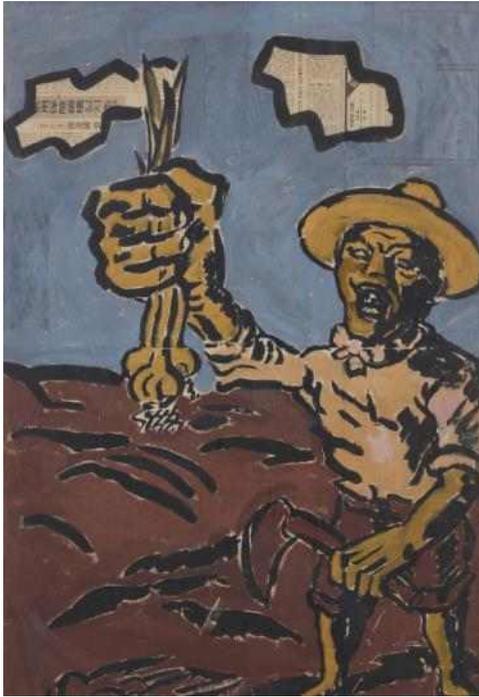
김정헌의 <무지개 공장>(1980/2019 부분 재제작)은 1980년대 새로운 미술운동단체 '현실과 발언'의 창립전 출품작이다. 이 작품은 무지개 안 비좁은 공간에 조밀하게 모여 있는 공장 노동자들과 바로 옆 공장 굴뚝에서 피어나는 연기가 표현되었다. 이 연기는 신문 콜라주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1980년 당시 이 신문 콜라주 부분은 미스유니버스 대회 관련 이미지를 사용했으나 손상되면서 2019년 다른 이미지로 교체하였다. <분노하는 농부>(1980)는 신문 위에 아크릴 물감으로 그려진 작품이고, <풍경 8>(1981)은 캔버스에 유채로 그려진 작품이다. 김정헌의 1980년대 작품은 간결한 인물 표현으로 농부와 노동자를 그린 것이 특징이다.

<어느 농부의 삶>(1987/2017부분 재제작)은 소재적인 면에서 <분노하는 농부>와 연결되는 작품이다. 두 작품 모두 작가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분노하는 농부>에 등장한 농작물(마늘)과 농기구(낫), 땅(흙) 등의 소재를 <어느 농부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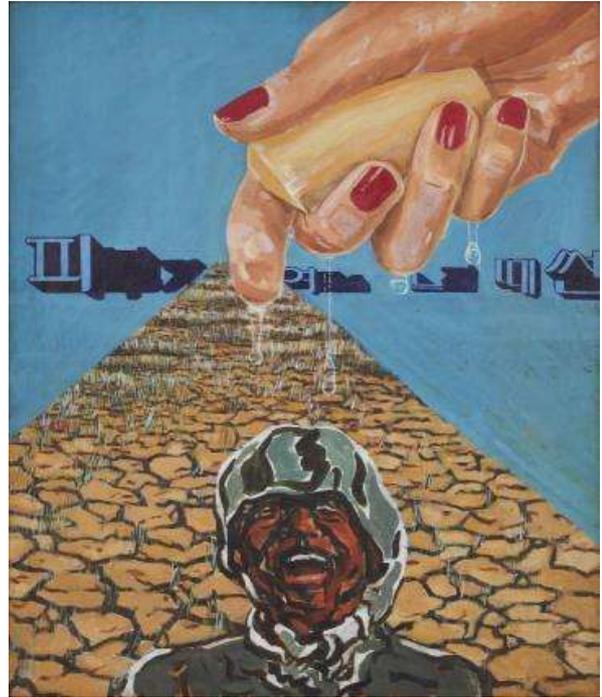
〈풍경 8〉은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물기 있는 손에 비누가 들려있는 이미지와 가뭄에 갈라진 땅 위에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라난 모 그리고 그 앞에서 비눗물을 맞는 농민이 나란히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도시와 농촌의 모순적인 상황을 그린 것이다.

〈후레쉬 민트는 모든 것을 녹색으로 보이게 한다. - 6·25의 기억〉(1984)는 검은색으로 그려진 도시의 폐허 사이에 초록색과 노란색 롯데껌이 그려져 있다. 김정헌은 한국 전쟁 기억의 매개체로 껌을 제시하고 있다. 폐허가 된 도시 위에는 초록빛의 산수풍경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6·25전쟁 폐허가 된 도시 풍경과 자연 경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김정헌은 소비문화의 부정적인 면을 6·25전쟁의 잔허와 동일시하여 표현했다.

주요작품. 〈분노하는 농부〉 *Angry Farmer*
1980, 신문에 아크릴 채색, 87 × 63.5 cm,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주요작품. 〈풍경 8〉 *Scenery 8*
1981, 캔버스에 유채, 72.5 × 61 cm,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주요작품 〈무지개 공장〉 *Rainbow Factory*
1980(2019 부분 재제작), 캔버스에 유채, 신문 콜라주, 73.3 × 133.3 cm,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 **공성훈** (1965-2021)

〈벽제의 밤-개〉(2003)는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개를 소재로 10년에 걸쳐 공성훈이 그린 작품 중 하나이다. 이 때 그린 그림들은 모두 밤이 배경이다. 공성훈은 〈개〉(2000), 〈개〉(2001)와 같이 개와 그림자만을 그리거나 당시 작업실이 있던 벽제 지역의 풍경, 눈, 빛, 개집 등의 소재들을 추가하여 회화 작업을 했다. 〈불타는 밤〉(2000)은 어두운 밤 풍경에 타오르는 불을 그린 작품이다. 세 작품은 자동차 헤드라이트, 가로등과 같은 인공의 빛을 받아 명확하게 표현된 대상과 흐릿하고 어두운 밤을 대비시켰다. 작가는 사진을 찍고, 그것을 재구성하여 그리는 과정을 거쳐 회화 작품을 완성했다.

한편 작가의 회화에서 나타나는 개의 이미지는 〈개떼〉(1999)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가 찍은 영상 아카이브로 이 작품을 관람할 수 있다. 작가는 대상을 직접 찍은 사진 조각을 이어 붙여 포토 콜라주 형식의 작품을 만들었으며, 이후 슬라이드 영사기, 사진 그리고 직접 개발한 기계 장치와 연결해 수제슬라이드 프로젝터라는 작가의 고유 형식으로 확장했다. 이 작품에서 개들의 이미지는 〈개〉에서 표현한 방식과 같이 빛과 어둠을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개떼〉의 수제 프로젝트 투사 방식은 공성훈의 회화 표현 기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작품. 〈벽제의 밤-개〉 *Beokje Night - The Dog*

2003,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130 × 162 cm,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 **민정기** (b.1949)

민정기의 『사람들』(1983~1989)은 아연판으로 제작한 낱장 판화 작품 11점을 책 형태로 묶은 작품이다. 이 묶음집은 <개울>(1989), <이른 봄 저녁>(1988), <아침 노점에서>(1988), <세수>(1989), <개인택시>(1985), <지하철>(1983), <대화(터놓고 이야기해서)>(1983), <과일 장수>(1983), <일터를 찾아서>(1983), <시속 40km>(1989), <문>(1983)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람들』은 총 2권이 제작되었고 한 권은 경기도미술관, 한 권은 작가가 소장 중이다.

작품은 1980년대 일상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는 풍경이나 소재를 다루고 있다. 모든 작품에 '사람들'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곧 등장할 듯한 대중적인 공간과 배경 때문에 민정기는 이 묶음집의 제목을 『사람들』이라 붙였다. 민정기의 『사람들』은 관람객에게 향수, 감상, 애정, 소망 등의 정서를 불러일으킨다.

민정기의 1980년대 초기 판화 작품은 매체 실험을 진행하던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작품이다. 민정기는 이 묶음집에 수록된 작품 중 <세수>(1980), <지하철[1]>(1981), <개인택시>(1982)를 유화와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뒤 이후에 <세수>(1989), <지하철>(1983), <개인택시>(1985) 판화로 재제작했다. 물감을 사용해 그린 그림을 판화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민정기는 판화의 선 표현에 매료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민정기는 옛 산수화의 구성 방식과 고지도 제작 방식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유화를 그리고 있다. 이 그림들은 동판화 제작 방식이 유화 작업에 적용되면서 민정기의 산수표현 양식을 구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주요작품. 『사람들』 묶음집 중 <아침노점에서> , *Street Stall in the Morning* , *People*
1988, 에칭, 에퀴틴트, 63 × 53.5 cm,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 정재철 (1959-2020)

정재철의 <제3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루트맵 드로잉>(2010)은 작가가 2004년부터 7년 동안 진행한 <실크로드 프로젝트> 중 마지막 프로젝트의 여정 기록을 아크릴 물감과 먹으로 그린 작품이다. 정재철은 이스탄불(터키)-아테네(그리스)-소피아(불가리아)-베오그라드(세르비아)-부다페스트(헝가리)-뮌헨(독일)-베를린(독일)-로마(이탈리아)-파리(프랑스)-런던(영국)을 거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국에서 준비해 간 세탁된 폐현수막은 각 도시의 현지인들과 함께 햇빛 가리개로 제작되었고, 독일에서만 추가로 현수막을 배포해 현지인이 사용하는 방식을 추가했다. 각 도시에서 프로젝트 도장을 제작하고, 광장을 걷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이 과정을 정재철은 비디오, 사진, 일지 등으로 기록했으며 이번 전시에서 <제3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루트맵 드로잉>과 함께 일부가 전시된다.

또한 <지도와 영토>에서는 정재철 작가의 나무 조각 작품 2점도 소개 한다.

<무제>(2002)는 작가가 제작한 정사각형의 나무 상자 안에 그가 여행·답사에서 수집한 사물들을 담은 작품이다. <정물1-3>(2003)은 선인장, 연꽃 등으로 추측되는 식물이 담긴 화분 혹은 화병을 나무로 조각한 것으로, 박제된 나비와 씨앗이 담긴 병과 함께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를 위해 나무 조각된 식물 4건만 재설치 된다. <무제>와 <정물>은 서울 근교 신도시 개발을 위해 잘려 나간 버려진 나무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들의 제작 배경은 추후 해안가 쓰레기로 작업한 <블루오션 프로젝트>(2013-2020)의 바탕이 되었다.

주요작품. <3차 실크로드 프로젝트 루트맵 드로잉>, 3rd Silk Road Project- Route Map Drawing

2010, 장지에 아크릴 물감, 먹, 210×304 cm, 경기도미술관 소장품



2. 전시 아이덴티티

지도와

김정현
KIM JUNGHEON

공성훈
GONG SUNGHOON

민정기
MIN JUNGKI

정재철
JUNG JAECHUL

김건희
KIM GUPHEE

영토

경기도미술관
신소장품전
GMOMA NEW ACQUISITIONS
EXHIBITION 2023

2023.9.19.-
2024.3.24.

경기도미술관
전시실 1,2
GMOMA
EXHIBITION HALL 1.2

경기도문화재단
GMOMA 경기도미술관

3. 프로그램 소개

□ 전시연계 프로그램

1. 연구자의 방-지도프로젝트 안내

《지도와 영토》에서는 참여 작가들의 작업 세계를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의 방-지도 프로젝트'를 선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다섯 연구자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각 연구자의 참여 작가 연구를 강연, 연구 글 그리고 연구하며 참고했던 다양한 자료를 살펴볼 수 있는 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재철-민정기-김건희-공성훈-김정현 순으로 진행됩니다. 강연에 관한 정보는 향후 경기도미술관 홈페이지와 SNS를 참고해 주세요.

연구자의 방 운영기간	연구자 강연	작가	연구 주제	연구자
9월 19일 ~ 10월 30일	9월 19일 14:30	정재철	「꽃그늘을 찾아가는 여행기」	이소요 (미술작가)
10월 31일 ~ 12월 4일	11월 1일 15:00	민정기	「키치문화와 당대를 표현하는 민정기 판화의 사회성」	이혜현 (해당 전시기획자)
12월 5일 ~ 24년 1월 15일	12월 5일	김건희	「물힌 시대상의 발굴- 김건희의 작업실 리서치와 인터뷰를 중심으로」	김소정 (월간미술 기자)
1월 16일 ~ 2월 19일	1월 19일	공성훈	「설치에서 회화로, 대상에서 풍경으로」	신지현 (독립기획자)
2월 20일 ~ 3월 24일	3월 24일	김정현	「1980년대 김정현 작품의 다층적 재조명」	조은솔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

* 연구자 강연은 미술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연구자 소개

김소정(김건희 연구자)

김소정은 학부에서 사학을 전공하고 이대 미술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동시대 미술현장에서 전시 기획자로 활동하다 미술품 유통이 첨예하게 이뤄지는 미술시장에서 갤러리스트로 일했다. 이후 미술계의 지원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고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미술의 힘과 가치와 시장성을 선순환시키는 지원사업들을 기획 운영했다. 현재 월간미술에서 기자로 재직하며 미술계 전반의 흐름을 기록, 취재, 연구하고 있다.

신지현(공성훈 연구자)

신지현은 전시 기획자로 뉴미디어 시대 안에서 전통적 매체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과제로 삼고 전시와 글을 통해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미니어처》(시청각 랩, 서울, 2023), 《영원과 하루》(WESS, 서울, 2023), 《끝에서 두 번째 세계》(공동기획, 하이트컬렉션, 서울, 2022), 《각》(공동기획, 하이트컬렉션, 서울, 2022), 《이곳에선 모든게 자연스럽게 않으면 이상하다》(시청각 랩, 서울, 2022), 《21세기 회화》(공동기획, 하이트컬렉션, 서울, 2021), 《10 Pictures》(WESS, 서울, 2020), 노은주 개인전 《Walking — Asid

e》(스페이스윙앤딜링, 서울, 2020), 전명은 개인전 《Floor》(세마창고, 서울, 2019), 《3×3: 그림과 조각》(시청각, 서울, 2018), 《Post-Pictures》(갤러리175, 서울, 2015) 등을 기획하였다.

이소요(정재철 연구자)

이소요는 사람과 함께 해 온 생물의 문화사를 다루는 미술작가이다. 인간 활동으로 교란되는 환경에도 다양한 생태적 틈새와 삶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작가가 직접 수행하는 현장 조사와 재료 실험을 주된 창작 과정으로 여긴다. 렌슬리어 공과대학에서 예술·과학사 학제간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경기도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호주현대미술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혜현(민정기 연구자)

이혜현은 국문학과 미술이론을 공부했다. 경기도미술관에서 근무 중이며 최근 박물관 그리고 미술관에서 소장품을 활용한 전시를 기획했다. 플럭서스와 페미니즘 아트 경계에서 규정된 미술사적 의미를 은유라는 방법론으로 연구하는 과정에 관심이 있다. 또한 문학적 용어를 방법론적으로 응용하여 현대미술 안에서 풀어내고자 노력한다.

조은솔(김정현 연구자)

조은솔은 대학에서는 미술사를 공부했다.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일하며 전시를 기획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한다. 기록을 기반으로 한 미술사 재정립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4. 전시 관람 안내

- 관람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입장은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입니다.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날·추석 연휴 당일
- 관람료 : 무료
- 관람문의

T. 031-481-7000

H: gmoma.ggcf.kr

Facebook©ggmoma

Instagram©gyeonggimoma